



국어사

소실 음운, 어두 지음군, 모음 조화, 방점, 격 조사, 명사형 어미, 높임법, 의문문, 아어 적기

1. 국어사의 시대 구분

고려 건국(10세기) 한글 창제(15세기 중엽) 임진왜란(16세기 말) 개화기(19세기 말)

고대 국어	전기 중세 국어	후기 중세 국어	근대 국어	현대 국어
-------	----------	----------	-------	-------

2. 고대 국어의 특징

고대 국어는 우리 선인들이 한반도에서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통일 신라 시대까지 사용된 국어를 가리킴. 이 시기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 다양한 방식으로 차자(借字) 표기를 하였음.

- (1) 음운: 자음 체계에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의 대립만 있었음.
- (2) 어휘: 한자어가 유입되어 어휘 체계에서 그 비중이 서서히 커졌음.
- (3) 표기: 구결, 이두, 향찰 등 한자 차용 표기법이 사용되었음.

구결	한문의 문맥을 파악하기 쉽도록 어구 사이에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한자로 표기함.
이두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 조사나 어미를 한자로 표기함.
향찰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도록 배열한 다음, 어휘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리고 조사나 어미 등은 한자의 음을 빌려 향가 표기에 활용함.

3. 중세 국어의 특징

중세 국어는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한글로 기록된 문헌 자료가 많이 나온 시기를 기점으로 전기 중세 국어와 후기 중세 국어로 구분함. 대략 10세기 초에서 15세기 중엽까지를 전기 중세 국어 시기, 15세기 중엽에서 16세기 말까지를 후기 중세 국어 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1) 음운

- ① 된소리 계열이 생겨났음. ㉠ 숨(꿈), 쫓(달), 쫓(뿔)
- ② 현대 국어에 없는 'ㅼ, ㅽ, ㅿ' 등이 쓰였음. ㉡ 서븨(서울), 처븨(처음), 말쑤(말씀)
- ③ 어두 지음군 'ㅼ, ㅽ, ㅿ' 등이 존재하였음. ㉢ 뜯(뺏), 찰(찰), 쫓(꿀)
- ④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지는 편이었음. ㉣ 나논/너는, 나툰/너를
- ⑤ 방점을 사용하여 소리의 높낮이(성조)를 표시하였음. ㉤ 활, ·갈(갈), ·돌

(2) 어휘

- ①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고유어가 쓰였음. ㉥ 뵤(산), ㉦ 톱(강)
- ②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이 들어오면서 한자어가 같이 유입되어 적절한 고유어가 없는 공백을 자연스럽게 메웠음.
- ③ 몽골어, 여진어 등에서 어휘가 차용되기도 하였음.
㉧ 보라매(사냥에 쓰이는 매), 수라(왕의 식사) - 몽골어에서 음.

개념 플러스

• 고대 국어의 기타 표기 방식

- 한자의 음과 뜻을 사용하여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의 고유 명사를 표기하였음.
-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변형하는 서기체 표기가 쓰였음.

• 된소리의 발달

된소리는 전기 중세 국어 시기에 등장하여 점차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된소리의 발달은 현대 국어에서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의 대립 체계가 성립되는 데 영향을 미쳤음.

• 모음 조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현상을 가리킴. 중성 모음은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둘 다와 어울릴 수 있음.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등은 양성 모음, ㅜ, ㅠ, ㅡ, ㅣ,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등은 음성 모음. 'ㅣ'는 중성 모음임. 15세기에는 '체언+조사'나 '용언 어간+어미'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

• 방점의 사용

단어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각 음절의 왼쪽에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를 표시하였는데, 이를 방점이라고 함.

- 평성: 낮은 소리이고 방점이 없음.
- 거성: 높은 소리이고 방점은 1개임.
- 상성: 처음은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고 방점은 2개임.

(3) 문법

① 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음.

㉠ 나모(나무), 나모와(나무와), 남기(나무가), 남곤(나무는)

② 주격 조사는 '가'가 없고 '이'만 있어서 앞말의 환경에 따라 '이, ㅣ, ㅅ'의 세 형태로 실현되었음.

형태	환경	예
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	말쌈(말쌈+이)
ㅣ	모음 'ㅣ'나 반모음 'ㅀ'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	부테(부터+ㅣ)
ㅅ(생략)	모음 'ㅣ'나 반모음 'ㅀ'로 끝난 체언 뒤	불취(불취+ㅅ)

③ 목적격 조사는 '을/를, 을/를/르'로 실현되었음.

형태	환경	예
을/을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바불(밥+을), 썸들(썸+을)
를/를/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나를(나+를), 너를(너+를), 머릴(머리+르)

④ 관형격 조사는 '의/의'와 'ㅅ'으로 실현되었음.

형태	환경	예
의/의	평칭(높이지도 낮추지도 않음.)의 유정 명사 뒤	스스미(사슴의), 거부비(거북의)
ㅅ	높임의 유정 명사 뒤 또는 무정 명사 뒤	부텃(부처의), 나뭇(나무의)

⑤ 명사형 어미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음/음'이 사용되었음.

㉠ 안죤(안-+-음), 여룸(여-+-음)

⑥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과 '예',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의 문문에서 종결 어미나 의문 보조사가 달리 사용되었음.

구분	선어말 어미 및 의문 보조사	예
설명 의문문	'-뇨', '-료' 등의 종결 어미나,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의문 보조사 '고/오'에 의해 실현됨.	므슴 마를 니르느뇨(무슨 말을 이르는가), 언던 사름고(어떤 사람인가)
판정 의문문	'-녀', '-려' 등의 종결 어미나, 체언 뒤에 바로 붙는 의문 보조사 '가/야'에 의해 실현됨.	늘구미 잇느녀(늘음이 있는가), 녀희 중기(녀희 중인가)

⑦ 높임 표현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의 체계를 이루고 있었음. 현대 국어와 달리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임.

구분	선어말 어미 및 환경	예
주체 높임	'-사'-(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샤'-(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주시느다(주신다)
객체 높임	'-습'-(ㄱ, ㅂ, ㅅ, ㅇ 뒤), '-줍'-(ㄷ, ㅌ, ㅈ, ㅊ 뒤), '-습'-(모음, 'ㄴ, ㄹ, ㄷ' 뒤), '-습/줍/습'-(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돕스부니(도우니), 듣줍고(듣고), 보습고져(보고자), 보스뵤면(보면)
상대 높임	'-이'-(주로 평서문에), '-잇'-(주로 의문문에)	오사니잇고(오셨습니까)

(4) 표기

① 단어 간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음. ㉠ 므츨내제쁘들시리

② 받침에는 주로 여덟 개의 초성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 적도록 하였음.

③ 단어의 형태를 고정해 표기하지 않고 실제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이어 적기(연철)를 하였음. ㉠ 말쌈미(말쌈+미)

• 중세 국어의 안은문장

안은문장의 경우 명사절이 '-음/음'이나 '-디', '-기'에 기대어 나타났으며, 관형사절은 '-(으)ㄴ' 외에 'ㅅ'에 기대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음. 그리고 부사절은 현대 국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인용절이나 서술절은 조사나 어미와 같은 표지 없이 나타났음.

• 중세 국어의 시간 표현

현재 시제	동사 어간에는 선어말 어미 '-느-'가 연결되는 반면, 형용사 어간에는 특정한 선어말 어미가 연결되지 않았음. ㉠ 가느다(간다), 어엿쁘다(불쌍하다)
과거 시제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의 '-았-/었-'에 해당하는 선어말 어미가 발달하지 않아, 동사의 과거 시제가 특정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없이 표현되기도 하였음. 또한 화상의 의미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도 하였음. ㉠ 가대(갔다), 가더라
미래 시제	추측의 의미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리-'를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였음. ㉠ 가리라

• 선어말 어미 '-오-'

중세 국어에서는 주어가 1인칭 화자일 경우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오-'가 사용되었고, 이후 근대 국어에서 소멸되었음.

㉠ 나는 ~ 바도리라(발+오+라+라, 받겠다), 내 ~ 아노라(안+오+라, 안다)

• 이어 적기

이어 적기란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앞 형태소의 종성을 다음 형태소의 초성으로 내려서 쓰는 방식을 이룸.

4. 근대 국어의 특징

근대 국어는 시기적인 측면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음운, 어휘, 문법 등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이어 주는 중요한 고리의 역할을 함.

(1) 음운

- ① ‘ㅏ’가 16세기부터 약화되다가 17세기에 소실되었고, ‘ㅓ’도 중성에서만 실현되고 글꼴도 ‘ㅓ’로 변화하였음. **예** 아버지 > 어버이, 흐느이다 > 흐느이다
- ② ‘ㅡ’가 16세기부터 둘째 음절 이하에서 주로 ‘ㄷ’로 바뀌고, 18세기에는 첫째 음절에서 ‘ㅏ’로 변화하였음. **예** ㄹㅏㅓㅓㅓ > ㄹㅓㅓㅓㅓ > ㄹㅓㅓㅓㅓ
- ③ ‘ㅓ’계, ‘ㅕ’계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면서 된소리로 바뀌었음.
예 ㅓ > ㅓ(때), ㅕ > ㅕ(뜻)
- ④ 두음 법칙에 변화가 나타나 모음 ‘ㅣ’나 반모음 ‘ㅚ’ 앞에 오는 어두의 ‘ㄴ’이 탈락되기 시작하고, 17~18세기에는 구개음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났음.
예 ㄴㅓㅓ > ㅓㅓ, ㅓㅓ > ㅓㅓ
- ⑤ 양순음(ㅁ, ㅂ 등) 아래에서 평순 모음인 ‘ㅡ’가 원순 모음 ‘ㅜ’로 변화하였음.(원순모음화) **예** ㅁ > ㅁ, ㅂ > ㅂ, ㅓ > ㅓ
- ⑥ 격음화(거센소리되기)나 경음화(된소리되기)가 나타났음.
예 ㄱㅓㅓ > ㄱㅓㅓ(ㄱㅓㅓ), ㅓ > ㅓ(ㅓ)
- ⑦ 방점이 사라지고, 중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종류가 7개(ㄱ, ㄴ, ㄷ, ㄹ, ㅁ, ㅂ, ㅇ)로 줄어들었음.

•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근대 국어에서는 중세 국어에서 이중 모음이었던 ‘ㅓ, ㅕ’가 단모음화하여 8개의 단모음 체계(ㅏ, ㅓ, ㅓ, ㅓ, ㅓ, ㅓ, ㅓ, ㅓ)가 됨. 19세기에는 ‘ㅓ, ㅕ’의 단모음화가 일어났음.

• 방점의 소멸

16세기 후반부터 동요되던 성조가 사라지면서 방점도 사라지게 됨. 성조는 17세기를 전후하여 더 이상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비분절 음운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음의 장단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됨.

(2) 어휘

- ① 고유어가 한자어로 많이 대체되었음. **예** ㅓ > 산, ㄹㅓㅓ > 강
- ② 중국을 통해 서구 문물이나 사상이 유입되면서 관련된 어휘들이 들어왔음.
예 자명종(自鳴鐘), 천주교(天主教)
- ③ 어휘의 의미 변화가 많이 나타났음. **예** 어엿브다(불쌍하다 > 아름답다)

(3) 문법

- ① 주격 조사 ‘가’가 출현하여 ‘이’와 구별되어 쓰였음. ‘가’는 초기에는 반모음 ‘ㅣ’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이다가 점차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전체로 확대되어 쓰였음.
예 ㅓㅓ 오다
- ②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줍-/-습-’이 점차 쓰이지 않게 되었으며, 화자의 겸양(공손)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스오-/-즈오-/-오-’로 변화하였음.
- ③ 명사형 어미 ‘-음/음’이 ‘-음’으로 변하고 ‘-기’가 활발히 쓰였음.
- ④ ‘ㅏ’가 소실되면서 ‘ㅓ’ 불규칙 활용으로 변화하였음. **예** 지ㅓ > 지ㅓ
- 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앗-/-엇-’이 확립되었음.

(4) 표기

- ① 중성의 ‘ㄷ’과 ‘ㅓ’은 발음상의 구별이 어려워지면서 ‘ㄷ’을 ‘ㅓ’으로 적는 경향이 나타났고, ‘ㄱ, ㄴ, ㄹ, ㅁ, ㅂ, ㅓ, ㅇ’의 7개 중성을 사용하였음. **예** 밋어(밋어)
- ② 중세의 이어 적기 방식이 현대의 끊어 적기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적 표기인 거듭 적기 방식이 나타났음. **예** 바를(이어 적기), 밤를(거듭 적기), 밤을(끊어 적기)

• 끊어 적기(분침)와 거듭 적기(중침)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끊어 적기는 앞 형태소의 중성과 뒤 형태소의 초성을 각각 구별하여 적고, 거듭 적기는 앞 형태소의 말음을 중성에도 적고 뒤 형태소의 초성에도 적음.

대신 대비 문제

기본 확인

- 다음 설명이 맞으면 ○, 틀리면 ×표를 하시오.
- ① '수비'에는 오늘날에는 없는 자음이 들어 있다. ()
 - ② '히·여'의 첫음절과 둘째 음절은 성조가 다르다. ()
- 알맞은 내용에 ○표를 하시오.
- ③ '뿌·메'에는 (이어 적기 / 저듬 적기 / 꿔어 적기) 방식이 적용되었다.
 - ④ 근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가' / '이')가 등장하여 점차 확대되어 쓰였다.

1 <보기>의 ㉠~㉣의 시제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이찍 아들들히 아비 ㉠죽다 듣고
(이때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었다 듣고)
- 내 이제 分明히 너드려 ㉡닐오리라
(내가 이제 분명히 너에게 말하겠다)
- 하늘히며 사람 사는 짜홀 뵈호아 世界라 ㉢흐느니라
(하늘이며 사람 사는 땅을 모아서 세계라 한다.)

	㉠	㉡	㉢
①	과거	현재	미래
②	과거	미래	현재
③	과거	과거	미래
④	현재	현재	미래
⑤	현재	미래	현재

2 <보기>에 따라 '나랏말'의 소리의 높낮이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보기

중세 국어에서는 각 글자의 왼편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아·니·말·썩'은 오른쪽과 같은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낸다.

아 · 니 : 말 · 썩

- ① 나랏말
- ② 나랏말
- ③ 나랏말
- ④ 나랏말
- ⑤ 나랏말

3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 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는데, 이 선어말 어미는 음운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었다.

형태	환경
-습-	어간 말음이 'ㄱ, ㅂ, ㅅ, ㅇ'일 때
-줍-	어간 말음이 'ㄷ, ㅌ, ㅈ, ㅊ'일 때
-술-	어간 말음이 모음이나 'ㄴ, ㄹ'일 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습/줍/술-'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 ① '돕고'는 '-습-'을 사용하여 '돕습고'가 될 수 있겠군.
- ② '묻지'는 '-줍-'을 사용하여 '묻줍지'가 될 수 있겠군.
- ③ '보아'는 '-술-'을 사용하여 '보스바'가 될 수 있겠군.
- ④ '내어'는 '-줍-'을 사용하여 '내즌바'가 될 수 있겠군.
- ⑤ '빌게'는 '-습-'을 사용하여 '빌습게'가 될 수 있겠군.

중요

4 <보기>의 [A]와 [B]에 들어갈 표기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선생님: '·' (아래아)는 16세기 무렵에 어두가 아닌 곳에서 'ㅡ'로 변하였고, 18세기 전반에는 어두에서 'ㅏ'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ㅏ'는 '·'의 변화 전에 소실되었습니다. 다음은 'ㅎ'가 'ㅏ'로 바뀌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ㅎ → [A] → [B] → ㅏ

- | | | | | | |
|---|-----|-----|---|-----|-----|
| | [A] | [B] | | [A] | [B] |
| ① | ㅎ | ㅏ | ② | ㅏ | ㅏ |
| ③ | ㅏ | ㅏ | ④ | ㅏ | ㅏ |
| ⑤ | ㅏ | ㅏ | | | |